

글로벌 분석 · 시험 · 검정 · 평가 선도기관으로의 도약 다짐

농식품분야 국내의 유일한 종합분석검정 전문기관
농자재 · 농식품의 안전과 신뢰 확보 위한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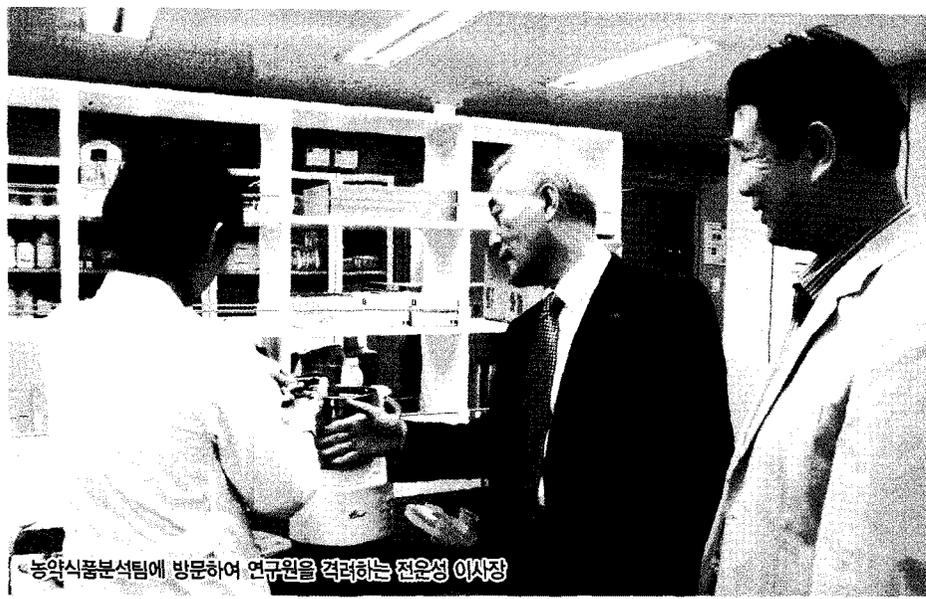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전운성)은 2009년 9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10년 1월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요업무로는 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보급하려는 종자·종묘의 증식 판매사업, 그리고 농자재 및 농식품 등의 분

석과 농기계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자재·농식품 등의 분석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의 분석검정보부(본부장 신진섭)는 2010년 1월말에 종합분석검정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현재 분석지원실, 비료사료분석팀, 농약식품분석팀, 농기계검정팀 1실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농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 분석 등과

관련한 국가사무와 농촌진흥청 민원과 관련된 분석업무, 농업기계 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농약식품분석팀에 방문하여 연구원을 격려하는 전운성 이사장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연구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검정본부의 농약식품분석팀을 탐방했다.

국민의 건강한 식탁 책임지다

농약식품분석팀(팀장 오홍규)은 농약제품, 농약잔류, 농축산식품, 유전자분석을 위한 연구원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질의 농자재 공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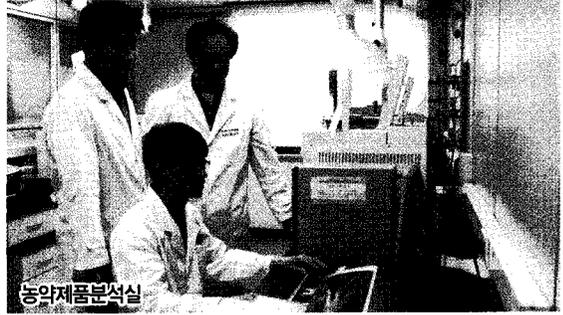
농약제품분석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또는 민원농약을 대상으로 농약의 과학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농약 유통방지, 안전농약 공급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이 발취하거나 민원인이 분석을 의뢰한 농약의 주성분(유효성분 정량분석)과 물리성 분석을 농약공정분석방법(농촌진흥청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위탁하는 농약시료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개발과정에서의 경시변화시험, 유해성분 분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업무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농약잔류분석은 수확된 농산물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잔류하는 농약을 분석하는 것으로 농진청 위탁 분석업무 등에 대한 작물, 토양, 수중에서의 잔류량 분석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의 작물잔류성 시험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농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 및 수중환경에서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이외의 농축산식품분석은 농식품,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일반 조성분(수분, 회분,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산과 함께 신선육에 대한 물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물유전자의 분석은 주로 한우/젓소를 판별하는 품종식별과 한우/수입육을 판별하는 한우확인시험법 등 친자감별, 암·수 성(sexing) 판별 등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오홍규 농약식품분석팀의 팀장은 재단의 비전에 대해 "농업·농촌에 사용되는 자재와 농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최고의 전문성과, 최첨단 장비로 종합분석시스템을 확립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석 선도기관으로서의

연구현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 농약식품분석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라며 농촌진흥청에서 공직생활 34년의 경력을 지닌 분석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분석의 메카로서의 초석 세우다

또한 오팀장은 “농축산식품 분석은 다양한 민원의뢰가 예상됨에 따라 분석력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또한 인력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농진청 위탁업무에 대한 기술습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며, “최고의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농업환경 및 농식품 안전성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며 분석의 메카로서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팀의 포부를 밝혔다.

농약식품분석팀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은 농약제품의 주성분 상하한제도가 시행되는 해이므로, 기존의 상한제와 차이점을 확인하여 개선하고, 석면 분석을 위한 농약공정분석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

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고객의 분석 수요를 충족시켜 주며, 탠크함유 농약제품 중 석면검사를 진행하면서 분석자의 역량강화와 농약 공정분석법의 석면분석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식품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수출용 파프리카의 안전생산 기술개발 사업과 더불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종합분석검정센터 1층에 마련된 「고객모심방」은 고객을 위해 변함없는 초심의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맞이한다”는 슬로건 하에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분석업무와 관련 상담 및 접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공간이다.



이처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모든 직원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자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 향후 재단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㉞